

한국전력은 2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3-24 도드람 V-리그 남자 3라운드에서 OK금융그룹을 3-0(25-21 25-19 25-15)으로 꺾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2연패에서 벗어나 4위를 유지하며 9승 8패(승점 27점)로 5연패를 당한 OK금융그룹(8승 9패, 승점 22점)과 격차를 벌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날 13개의 블록으로 블록이 하나뿐인 OK금융그룹을 압도했습니다. 신영석과 서재덕이 각각 5개와 4개의 블록을 잡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외국인 선수 타이즈 덜 호스트는 서브 1개와 블록 1개를 포함해 1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재덕(12득점)과 임성진(10득점)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신재덕은 이날 8득점을 추가하며 미들블로커 최초로 4,000득점(4001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OK금융그룹의 레오나르도 레이바(등록명 레오)는 단 2점만 기록하며 V리그 데뷔 이후 가장 낮은 점수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국전력은 14-14로 맞선 상황에서 임성진의 오픈 공격과 티스의 백어택으로 연달아 골을 넣으며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은 임성진과 티스의 공격으로 20-16으로 달아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1세트를 25-21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세는 2세트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세트 초반 3연속 블록을 성공시키며 한국전력은 5-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서재덕이 서브를 넣으면서 한국전력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리드를 잡은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블로킹과 강력한 수비로 **21-12**까지 점수 차를 계속 벌였습니다.

4연패 탈출을 노리는 OK금융그룹은 포기하지 않고 **17-21**로 추격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임성진의 득점으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블로킹으로 **23-17**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서재덕이 골을 넣고 상대 실책을 범하며 2쿼터를 **25-18**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블로킹 득점으로 **3**세트를 시작해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티체의 공격과 서브 득점으로 **8-4**로 점수 차를 벌였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전력은 서재덕의 블로킹과 타이트니스 득점으로 계속 달아났습니다. 한국전력은 **25-1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소액결제 현금화](#)

GS칼텍스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 정관장을 **3-1(25-19 22-25 25-23 25-17)**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GS칼텍스는 **11승 6패(승점 31)**로 3위에 올랐습니다. 2연패를 당한 정현은 **7승 10패(승점 24)**로 5위를 유지했습니다.

GS칼텍스의 지젤 실바가 양 팀 중 가장 많은 35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의연과 강소휘가 각각 14점과 11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온라인카지노](#)